

산호세 한국인 순교자 성당 성령 기도회

주 제:	“ 성령을 받아라. ”	“성령 강림 대축일”	2009년 5월 31일
복음 묵상:	[요한 20,19-23]	[사도 2,1-11]	[1 고린 12,3 ~-7.12-13]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는 그 따르는 무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위로하시고 평화를 주고자 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요한 14, 27). 세상의 평화는 세상적인 것인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화, 세상의 것에 의해 흔들림(?) 흔들리는 평화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두고 가야 하는 평화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골로 1, 20)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느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로마 5, 1)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 받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새로운 인간이 됨으로써 갖는 평화이다.

이 평화와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심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용기를 주신다는 의미이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승을 죽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두려웠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닐까?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길러주신 스승, 그들 모두가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도망친 그들이었다. 그들의 배신과 나약함과 비굴함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새 인간이 되게 하시고(창세 2, 7), 성령과 함께 용서를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제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들과 모든 이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용서가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참된 길임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고해성사도 여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고해성사 때 그리스도로부터 파견 받은 사제에게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다. 그 완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이루어진다(마태 18, 35). 이렇게 고해성사가 이루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참 평화가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부산 윤준원 신부님 강론에서)



예언 말씀

- + 누구나 다 힘들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마음을 모두 저에게 내려놓아주십시오.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아픔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아픔을 감싸안을 것입니다.
- + 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왜 나를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까? 왜 나를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없다고 울부짖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 +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아라. 그 절망과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희망의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두려움과 절망에 너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너희는 쓰러지지만, 나를 향해 고개를 들 때에 나는 희망, 기쁨, 구원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너희 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희망이 있고, 너희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이 나를 향할 때에 너희들의 무릎은 일으켜 세워지고 너희들의 발걸음은 더욱 더 힘차게 내디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향하여 달려오너라. 새로운 힘으로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나를 바라보아라. 그 절망과 두려움에서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달려 오너라.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에게 제공해 주겠다.
- + 입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1분 명상

♡ 내가 늘 함께하리라♡

- 고도원의 아침 편지중에서 -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홀로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는 말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라,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마라,  
 슬퍼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슬퍼하라,"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할 때 현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다시금 자리 잡습니다.

- 그랜저 웨스트버그의 《굿바이 슬픔》중에서 -

\* 슬픔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슬픔의 줄이 날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망은,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는 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의 한구석에도 희망이 다시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희망입니다.

생활의 지혜

● 전자레인지 얼룩과 냄새

레인지에 뜨거운 물을 담은 그릇을 넣어 2~3 분 가열해 내부에 수증기를 쐬어주면 늘러붙었던 오염이 부드러워져 청소가 쉬워진다.  
 주방용 세제를 푼 물을 행주에 담갔다가 꼭 짜서 내부를 닦고, 잘 지워지지 않으면 칫솔을 사용해 닦는다.  
 청소가 끝나면 내부가 건조될 때까지 문을 열어둔다.

● 묵은 쌀의 냄새를 없애려면

아침밥으로 사용할 쌀을 그 전날 저녁 미리 식초 1~2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씻어서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뺀다. 다음날 밥을 짓기 전에 한번 더 미지근한 물로 행군 후 밥을 지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에페 6,23).”